

3/1/20

설교 제목: 심판과 구원 (홍수와 노아 방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6 장 1-22 절

(창 6: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절관주** 창 1:28

(창 6: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 6: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절관주** 벰전 3:20

(창 6:4)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절관주** 민 23:19, 삼상 15:11

(창 6: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 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족보

(창 6: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 6:10)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창 6:11)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창 6: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창 6: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 (창 6:14)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 (창 6:15)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 (창 6:16)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 (창 6: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 (창 6: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 (창 6: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 (창 6: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 (창 6:21)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 (창 6: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노아 시대 부패 상과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리고 그런 노아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점점 무성하여져 가인과 라멕을 거쳐 노아 때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포악함으로 가득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남을 자 한 사람이 찾으셨으니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남을 자로 택하시고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당시 홍수로 세상을 쓸어 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비를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홍수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당장도 아니고 120 년 후어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에 순종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 6: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 6: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난해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손으로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의 결혼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세상 문화에 물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결혼을 하여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면 좋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이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가 믿지 않을 경우 남자들은 거의가 여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죄인인 가인의 후손들과 거룩한 셋의 후손들이 분명 구분되어 내려왔었는데 이때 섞이고 부터는 그 구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창 6: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 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이처럼 타락한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기만 하겠는가? 이제부터는 끊임없이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그들을 더 이상 끌어 올려고 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그들에게 백 이십 년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백 이십 년이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날부터 대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회개의 시간으로 백 이십 년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백 이십 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베푸신 마지막 자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네피림의 존재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창 6:4)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학자들에 따라 '거인' '난폭꾼' '훼방자' 등으로 봅니다.

용사는 강하고 힘센 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타락 방종 전쟁 압제 약탈이 무성하던 시대에 그 이름을 떨친 전쟁 영웅이나 부호들 또는 귀족들을 의미합니다.

네피림,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 이들 모두는 힘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용한 자들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씌였습니다.

당시 인간과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가득했고 부패했는지 본절에는 '부패'라는 단어가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창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 6: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 6:11)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창 6: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여 온 땅이 부패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마침내 사람을 지면에서 물로 쓸어 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은혜 입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노아입니다.

(창 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 6: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노아가 의인이라니요?

여기서 의인이란 세상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산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죄 속함을 받아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욕망과 감정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권모술수와 잔꾀로 살아가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소극적으로 믿음의 중심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끼쳤던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노아는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린 그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남을 자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창 6: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 6:14)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 6:15)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창 6:16)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방주의 재료 크기 구조까지 상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길이가 300 규빗(150m) 폭이 50 규빗(25m) 높이가 30 규빗(15m)인 큰 컨테이너 박스 같은 방주를 만들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창을 내고 내부는 상 중 하 삼층으로 만들고 또 칸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합니다.

배 모양이 유선형이어야 물살을 잘 가를텐데 하나님은 배를 박스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또 배의 방향을 조정할 듯이나 키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방주가 물에 흘러 가는대로 몸을 싣고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주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사람들을 홍수로부터 구원할 수 있느냐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방주 안에 사람들은 다 살고 방주 밖의 사람들은 모두 멸절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키를 움켜쥐고 몸부림치면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래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바람과 폭풍을 잠잠하게 해 주시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창 6: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창 6: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 6: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창 6: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창 6:21)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는 하나님 명을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창 6: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노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히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명을 준행함으로써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120 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숭한 어려움에 직면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어리석은 광신자라며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물질과 시간도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육신적인 고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적으로 파고드는 고독감과 소외감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그를 번민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방주를 짓기는 하지만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회의가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냈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의 날이 임했고 구원 방주에 들어 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멸절당했습니다.
오직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와 그 가족만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그와 그 가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 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구원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구원 방주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심판 날
구원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